

##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정 옥 분<sup>1)</sup>

김 경 은<sup>2)</sup>

박 연 정<sup>3)</sup>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의 중학교 1학년 학생 26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Torrance(1990)의 창의적 사고력 도형검사, 박영애(1995)의 자아존중감 척도, 김아영(1997)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는 Cronbach's  $\alpha$  계수, 평균, 표준편차, t-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정준상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은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창의성의 하위요인 중 유창성 요인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학업능력, 운동능력, 행동·품행 요인에서 성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 변인의 하위요인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청소년의 창의성 변인군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변인군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창의성의 변인들 중 제목의 추상성이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창의적 강점, 정교성,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 순이었다. 창의성 변인들이 가장 잘 예측하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변인은 자기조절효능감이고, 그 다음으로는 행동·품행에 대한 자아평가, 학업능력, 과제난이도선호와 사회적 수용도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청소년, 창의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

1)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2) 교신저자 : 고려대 박사과정, 고려대 교육대학원 강사, 상지 창의성연구소 소장 (E-mail : leejay48@chol.net)

3)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 I. 서 론

청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이 시기의 청소년은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서 불안정과 불균형으로 인한 심한 긴장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청년기를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한다.

청년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연령, 신체적·생리적 성숙도 및 심리적 성숙도 등 여러 가지를 들고 있으며, 그중 무엇을 기준으로 청년기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12~13세에서 24~25세를 청년기로 보고, 신체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때를, 그리고 심리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를 청년기로 본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며 자신이 누구인지에 궁금해 하고 자신에 대해 바로 알기를 희망한다. 즉, 자신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해 가며 자신에 대한 참된 자아상을 형성해 나간다.

특히, 중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들은 초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학교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신체적으로나 심리·정서적으로 아동기의 특성에서 벗어나 청년기의 특성을 갖게 되는 자기 자신에게 적응해야 한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교육의 큰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입시열풍’이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목고 진학’이라는 이름하에 중학생들도 입시나 학교성적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의 변화속도가 가속화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함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이 정체감의 위기에서 오는 혼란을 겪기도 하고, 새로운 발달과업 및 사회적 요구 등에 의해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청년기의 어려움을 적절하게 극복하지 못할 경우, 청년기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까지 적응상의 많은 문제를 지니게 되므로(구본용 외, 1995; 이현림, 2002), 이 시기에는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을 통해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높이고,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로서, 자아개념이 자아에 대한 인지적 측면이라면 자아존중감은 감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인지적으로 형성된 것이 자아개념이고, 자기 존재에 대한 느낌이 자아존중감이다(Simmons & Blyth, 1987).

Branden(1969)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기본욕구로서 이 욕구의 충족 여부는 생사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서 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알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Maslow(1965)는 개인의 적응력의 한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자아존중감에 관한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충족시킨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자신을 가치 있고 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자신을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과 주변의 객관적인 환경요소들에 대한 주관적·상대적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해 형성하게 되는 종합적 자기 평가와 자아가치감을 의미하며(박영애, 1995), 긍정적이고 건전한 자아존중감은 내적으로 생성된 실천의 산물로 의식적으로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생활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높은 수준의 자기 표현능력과 자기 확신 및 이해, 잠재적인 지도력, 재주, 지능과 숙련도, 좋은 인상을 주는 능력, 사회적인 기술, 실용적인 지식 등을 갖는 것으로 보이며,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불안하고 우울하며 낮은 성취수준을 보였고, 그들은 스스로가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선택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능이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 그들이 원했던 성공이나 더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며, 사회적 고립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Rosenberg, 1985). 특히 청년기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약물남용, 먹기장애, 우울증, 자살과 비행 그 외의 다른 적응문제를 낳기 때문에(Button, 1990; Fenzel, 1994; Harter & Marold, 1992; Reardon & Griffing, 1983; Robertson & Simons, 1989),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를 의미한다(Bandura, 1986, 1993, 1997). 즉, 과제수행에 필요한 동기, 인지적 원천,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 지적, 정서적 근원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Eden & Aviram, 1993)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자기 스스로 활동을 선택하며, 노력하고, 끈기 있는 인내심으로 높은 성취를 이루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김의철과 박영신, 1999; Collins, 198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가 강하고 실질적으로 학업성적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는 어떤 과제를 실제보다 더 어렵다고 믿거나 문제해결에 있어 폭넓은 시각을 갖지 못하고 의기소침해 하거나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을 뿐 아니라 환경에 대처하는 데 있어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윤운성, 1998).

자기효능감은 일반적으로 청년기에 증가한다. 특정 과제에서 성공 또는 실패한 경험에 비추어, 청소년들은 이제 특정 영역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를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과제지향적 노력을 하게 하여 높은 성취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반면, 낮은 자기효능감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하여 자신감이 결여되고 성취지향적 행동을 위축시킨다(Bandura & Schunk, 1981; Scheier & Carver, 1992). 이처럼 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 높은 자아존중감의 필요성(Coopersmith, 1981; Harter, 1989; Rosenberg, 1985) 및 자기효능감(박영신 외, 2000; Bandura, Cioffi, Taylor, & Brouillard, 1988; Holahan, 1996)의 중요성이 오늘날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한편, 2000년부터 적용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창의력, 사고력 등 고등정신능력의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한국교육개발원(1994)에서

한국인의 교육의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장 역점을 두고 가르쳐야 할 교육 분야로 창의성을 들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를 통한 창의성 신장이 학교교육의 목표라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Torrance(1959)에 의하면 창의성은 소수의 천재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이며 교육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Guilford(1967)는 창의적 사고를 지적 능력과 관련지어 설명하는데, 그는 지능의 구조 모형을 제시하면서 그중 확산적 사고가 창의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확산적 사고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해답을 할 수 있는 사고로, 하나의 정답을 유도하는 사고인 수렴적 사고와 대조를 이룬다. 이와 같이 창의적 사고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며, 특히 창의성 영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유아, 아동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창의성 연구를 살펴보면, 창의적인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여 자신의 삶을 즐길 줄 알며 다양한 방면에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그 호기심을 구체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ron, 1988; Cropley, 2001; Davis, 2001). 또한 창의성이 높은 유아는 높은 수준의 자기신뢰감과 정교한 부분에 대한 관심, 다양성, 만족감을 나타냈고,

사회성 측면에서 협동심을 표출하는 긍정적인 행동들을 많이 보였으며, 문제해결에 있어서 불필요한 정보는 무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augherty & Logan, 199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들의 창의성 또한 청소년기의 중요한 성취과업인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몇몇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이 창의적 특성을 측정하는 창의성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고 창의성 발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제시하였으나(Cropley, 2001), 창의성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아주 낮은 상관관계가 있거나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어 창의성과 자아존중감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결과(조성연, 1997)도 보고되고 있어 창의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있어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Dowd(1989)는 자아개념 혹은 자아존중감과 창의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 창의성 측정도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편, 창의성과 자기효능감 간에는 비교적 일관되게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진수와 이영만, 2000; 성은현, 2005; Cropley, 2001; Piirto, 1998),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간에도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udge, & Bono,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창의성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간에 어떠한 상호관계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우선, 신체적·심리적·환경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학교에 갓 입학한 청소년들의 창

의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사춘기의 진입시기가 성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남녀 청소년들이 창의적 사고능력,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후, 창의성의 어떠한 영역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징인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어떤 하위요인과 관계되는지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이 변인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밝힘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창의성,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 청소년의 창의성,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청소년의 창의성,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4. 청소년의 창의성 하위변인군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하위변인군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의 3개 중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 2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3개 중학교의 청소년은 교육환경이나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사하며,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에 있고 학교환경 또한 초등학교에

서 중학교로 바뀌는 시기에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요인들이 청소년의 자아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사료되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대상자 중 남자는 186명(71%), 여자는 76(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창의성

창의성 측정은 Torrance의 창의적 사고력 도형검사(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Figural A, 1990년 개정판)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3가지 활동의 검사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 1은 ‘그림 구성하기’로서 곡선 모양의 형태를 하나 제시하고 그 곡선이 일부가 되도록 하는 어떤 그림이나 물건을 생각하여 그리게 한 후, 그림에 알맞은 제목을 붙이게 하는 것이다. 활동 2는 ‘그림 완성하기’로서 10개의 불완전한 도형을 제시하고 될 수 있는 한 이야기가 완전하고 재미있는 물건이나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이다. 완성 후에는 그림에 제목을 붙이게 한다. 활동 3은 ‘선 더하기’ 과제로서 쌍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직선이나 동그라미를 제시하고 어떤 물건이나 그림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표현해 보게 하는 것이다. 각각은 될 수 있는 대로 완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의 내용이 되게 한다. 또한 각각에 대하여 이름이나 제목을 적어 놓도록 한다. 검사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40분이다. TTCT 도형검사는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 제목의 추상성,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 창의적 강점의 6개 하위요인 점수가 산출된다. 각 점수는 표준점수로 변환되어 사용되는데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는 20이다(김영채, 2002). TTCT 채점은 훈련을 받은 3명에 의해 이루어

졌고, 본 검사에서의 채점자 간 신뢰도 검증을 위해 동일한 문항에 대해 각각 채점하였다. 채점자 간 신뢰도는 유창성은 .99, 독창성은 .92, 정교성이 .99, 제목의 추상성이 .89,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이 .92로 매우 신뢰할만하였다.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박영애(1995)가 Harter의 자아지각검사를 번안하고 전공자들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과 신뢰도 검사 및 요인분석 등의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친 것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을 단일요인으로 보기보다는 몇 가지 하위영역과 관련된 자기 평가와 전반적인 자아가치에 대한 자기 판단 등이 결합되어 있는 종합적이고 역동적인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아 학업능력과 운동능력에서의 자아유능성 판단과 자신의 사회적 수용도, 신체적 용모, 그리고 행동 및 품행에 대한 자아적절성 평가, 그리고 전반적인 자아가치감에 대한 자기 판단을 포함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의 6가지 하위영역에는 학업능력과 운동능력 등의 유능성 판단과 사회적 수용, 신체적 용모, 행동·품행 등의 자아적절성 평가, 그리고 전반적인 자아가치감이 포함되어 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4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0이었고 하위요인별 Cronbach's  $\alpha$  계수는 학업능력이 .81, 운동능력이 .85, 사회적 수용이 .81, 신체적 용모가 .80, 행동·품행이 .75,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75이었다.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해서는 김아영(1997)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뢰도 및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검증을 거친 것으로,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3개 하위영역을 포함하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감 요인은 어려운 일, 위험 상황,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고, 자기조절효능감 요인은 문제나 상황에 대한 판단력, 정확성, 원인과 결과 분석력, 정보활용도, 계획성, 조직성, 일에 대한 끈기 등을 측정하며, 과제난이도선호 요인은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을 선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이었고, 자신감은 .78, 자기조절효능감은 .82, 과제난이도선호는 .85이었다.

###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5년 3월 서울 및 수도권 소재의 3개 중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와 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창의성 검사를 실시한 후, 자기보고식 척도로 이루어진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50~60분 정도였다.

###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각 검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

였으며, 청소년의 창의성,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창의성,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창의성의 하위요인군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군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청소년의 창의성,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

청소년의 창의성,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각

하위요인의 문항 수가 다르므로 하위요인별 점수의 총합을 문항 수로 나누어 하위요인별로 비교하였다. 각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있다.

먼저 청소년의 창의성 수준을 살펴보면, 창의성은 평균을 100으로 두고 이 점수보다 더 높은지 낮은지를 통해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창의성 점수는 101.21로 평균 수준이었고 하위변인별로는 유창성(M=107.55, SD=23.75), 독창성(M=105.45, SD=22.83) 순으로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M=96.92, SD=16.62), 정교성(M=87.02, SD=19.91), 제목의 추상성(M=79.45, SD=22.71)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아이디어에 대한 유창성과 독창성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지만,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자신의 판단을 보류하거나 자신이 산출한 아이디어를 정교화시키거나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청소년들의 창의성,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 (n=262)

|             |                   | M      | SD    |                       |              | M    | SD  |                       |             | M    | SD  |
|-------------|-------------------|--------|-------|-----------------------|--------------|------|-----|-----------------------|-------------|------|-----|
| 창<br>의<br>성 | 유창성               | 107.55 | 23.75 | 자<br>아<br>존<br>중<br>감 | 학업능력         | 2.61 | .53 | 자<br>기<br>효<br>능<br>감 | 자신감         | 3.38 | .77 |
|             | 독창성               | 105.45 | 22.83 |                       | 운동능력         | 2.70 | .49 |                       |             |      |     |
|             | 제목의 추상성           | 79.45  | 22.71 |                       | 사회적수용        | 2.66 | .38 |                       | 자기조절<br>효능감 | 3.34 | .53 |
|             | 정교성               | 87.02  | 19.91 |                       | 신체적용모        | 2.47 | .64 |                       | 과제난이도<br>선호 | 3.15 | .85 |
|             | 성급한<br>종결에의<br>저항 | 96.92  | 16.62 |                       | 행동·품행        | 2.68 | .45 |                       |             |      |     |
|             | 창의적<br>강점         | 6.76   | 2.90  |                       | 전반적<br>자아가치감 | 2.87 | .56 |                       |             |      |     |
|             | 총점                | 101.21 | 18.16 |                       | 총점           | 2.67 | .33 |                       | 총점          | 3.31 | .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었는데 평균이 2.67( $SD=.33$ )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전반적 자아가치감( $M=2.87$ ,  $SD=.56$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운동능력( $M=2.70$ ,  $SD=.49$ ), 행동·품행( $M=2.68$ ,  $SD=.45$ ), 사회적 수용( $M=2.66$ ,  $SD=.38$ ), 학업능력( $M=2.61$ ,  $SD=.53$ ), 신체적 용모( $M=2.47$ ,  $SD=.64$ )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은 변화하는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었는데 평균이 3.31( $SD=.48$ )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하위요인별로는 자신감( $M=3.38$ ,  $SD=.77$ ), 자기조절효능감( $M=3.34$ ,  $SD=.53$ ), 과제난이도선호( $M=3.15$ ,  $SD=.85$ )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창의성,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청소년의 창의성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창의성의 하위요인 중 유창성 요인에 있어서만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유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능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있어서의 성차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학업능력, 운동능력, 행동·품행 요인에서 유의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학업능력과 운동능력에 있어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 반면, 자신의 말이나 행동, 품행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간에 자기효능감의 총점 및 하위요인별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창의성에 있어서의 성차

| 변인        |       | 유창성    | 독창성    | 제목의 추상성 | 정교성   | 성급한<br>종결에의 저항 | 창의적<br>강점 | 창의성    |
|-----------|-------|--------|--------|---------|-------|----------------|-----------|--------|
|           |       | M      | M      | M       | M     | M              | M         | M      |
|           |       | SD     | SD     | SD      | SD    | SD             | SD        | SD     |
| 성별<br>(n) | 남     | 109.54 | 107.18 | 78.96   | 86.07 | 96.44          | 6.90      | 101.40 |
|           | (186) | 23.32  | 22.36  | 22.70   | 20.82 | 17.11          | 3.02      | 19.29  |
|           | 여     | 102.66 | 101.21 | 80.66   | 89.33 | 98.11          | 6.42      | 100.73 |
|           | (76)  | 24.22  | 23.55  | 22.85   | 17.39 | 15.40          | 2.58      | 15.15  |
|           | t     | 2.11*  | 1.89   | -.55    | -1.30 | -.77           | 1.29      | .30    |

\*  $p < .05$

표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있어서의 성차

| 변 인       |       | 학업능력   | 운동능력    | 사회적<br>수용 | 신체적<br>용모 | 행동·품행  | 전반적<br>자아가치감 | 자아<br>존중감 |
|-----------|-------|--------|---------|-----------|-----------|--------|--------------|-----------|
|           |       | M      | M       | M         | M         | M      | M            | M         |
|           |       | SD     | SD      | SD        | SD        | SD     | SD           | SD        |
| 성별<br>(n) | 남     | 2.67   | 2.78    | 2.67      | 2.49      | 2.64   | 2.87         | 2.69      |
|           | (186) | .55    | .48     | .40       | .67       | .45    | .55          | .32       |
|           | 여     | 2.46   | 2.52    | 2.66      | 2.42      | 2.77   | 2.86         | 2.62      |
|           | (76)  | .44    | .47     | .34       | .57       | .44    | .59          | .33       |
|           | t     | 3.04** | 3.99*** | .07       | .80       | -2.19* | .19          | 1.62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있어서의 성차

| 변 인       |       | 자신감  | 자기조절효능감 | 과제난이도선택 | 자기효능감 |
|-----------|-------|------|---------|---------|-------|
|           |       | M    | M       | M       | M     |
|           |       | SD   | SD      | SD      | SD    |
| 성별<br>(n) | 남자    | 3.40 | 3.34    | 3.15    | 3.32  |
|           | (186) | .76  | .53     | .90     | .49   |
|           | 여자    | 3.34 | 3.37    | 3.15    | 3.31  |
|           | (76)  | .79  | .51     | .72     | .45   |
|           | t     | .61  | -.42    | .02     | .07   |

#### 청소년의 창의성,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청소년의 창의적인 사고능력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청소년의 창의성 총점은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학업능력( $r=.15$ ,  $p<.05$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의성의 하위요인 중 독창성, 추상성, 정교성, 창의적 강점 요인이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창성은

학업능력( $r=.13$ ,  $p<.05$ )과 추상성은 행동·품행( $r=.22$ ,  $p<.001$ ), 학업능력( $r=.17$ ,  $p<.01$ ), 사회적 수용( $r=.13$ ,  $p<.05$ ), 전반적 자아가치감( $r=.13$ ,  $p<.05$ ) 순으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 총점( $r=.14$ ,  $p<.05$ )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교성은 행동·품행( $r=.19$ ,  $p<.01$ )과 창의적 강점은 학업능력( $r=.13$ ,  $p<.05$ ), 행동·품행( $r=.13$ ,  $p<.05$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독창성과 추상성, 창의적 강점 및 창의성 총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청소년이 학업적 측면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높았

표 5

고, 추상적이고 정교하며 창의적 강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청소년이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적절하다고 느꼈으며, 특히 추상적인 사고를 잘하는 청소년의 경우 친구나 교사 혹은 자신에게 주요한 인물로부터 인정받고 수용된다고 느끼고 전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창의성 총점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 $r=.20,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창의성의 하위요인 중 추상성은 자기조절효능감( $r=.25, p<.001$ ), 과제난이도선호( $r=.18, p<.05$ ) 순으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 총점( $r=.21, p<.01$ )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창의성의 하위요인 중 정교성( $r=.20, p<.01$ ), 창의적 강점( $r=.19, p<.01$ ),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 $r=.16, p<.05$ ) 요인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창의적인 청소년은 문제나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나 분석력, 정보활용도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추상적인 사고를 잘 하는 청소년일수록 문제에 대한 판단력이 좋고 끈기가 있을 뿐 아니라 쉬운 과제보다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자 하며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존중감 총점과 자기효능감 총점 간에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r=.62, p<.001$ ), 두 변인의 각 하위요인 간에도 매우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 총점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 $r=.52, p<.001$ ), 자신감( $r=.48, p<.001$ ), 과제난이도선호( $r=.31, p<.001$ ) 요인의 순으로 높은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고, 자기효능감 총점은 학업능력( $r=.51, p<.001$ ), 전반적 자아가치감( $r=.44, p<.001$ ), 행동·품행( $r=.43, p<.001$ ), 운동능력( $r=.35, p<.001$ ), 신체적 용모( $r=.33, p<.001$ ), 사회적 수용( $r=.31, p<.001$ ) 요인의 순으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며 어떤 상황에서건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요구하는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청소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창의성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총점뿐 아니라 하위요인 간에도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 청소년의 창의성 하위변인군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하위요인군과의 관계 분석

##### 청소년의 창의성 하위변인군과 자아존중감 하위변인군과의 관계 분석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창의성 요인은 무엇이며 청소년의 창의성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자아존중감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의 창의성을 예측변인군으로 하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준거변인군으로 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참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섯 개의 정준함수 중 제1 정준함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유의도 검증결과를 보면 Wilk's

표 6. 청소년의 창의성 하위변인군과 자아존중감 하위변인군 간의 정준변량함수

| 정준변량함수  | 정준계수 | 정준근  | 비율     | 고유치  | Wilk's | Chi-SQ | df | Sig. |
|---------|------|------|--------|------|--------|--------|----|------|
| 제1 정준함수 | .350 | .122 | 54.884 | .140 | .784   | 61.783 | 36 | .005 |
| 제2 정준함수 | .252 | .064 | 26.708 | .068 | .894   | 28.530 | 25 | .284 |
| 제3 정준함수 | .157 | .025 | 9.895  | .025 | .995   | 11.805 | 16 | .757 |
| 제4 정준함수 | .113 | .013 | 5.122  | .013 | .979   | 5.480  | 9  | .791 |
| 제5 정준함수 | .090 | .008 | 3.227  | .008 | .991   | 2.186  | 4  | .702 |
| 제6 정준함수 | .020 | .000 | .164   | .000 | 1.000  | .106   | 1  | .744 |

표 7. 청소년의 창의성 하위변인군과 자아존중감 하위변인군 간의 정준상관관계 분석

|                |               | 예측변인군 |       |         |       |             |        |       | 준거변인군 |       |        |        |         |            |      |
|----------------|---------------|-------|-------|---------|-------|-------------|--------|-------|-------|-------|--------|--------|---------|------------|------|
|                |               | 유창성   | 독창성   | 제목의 추상성 | 정교성   |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 | 창의적 강점 | 전체    | 학업 능력 | 운동 능력 | 사회적 수용 | 신체적 용모 | 행동 · 품행 | 전반적 자아 가치감 | 전체   |
| 정준<br>변량<br>함수 | W             | .241  | -.400 | -.666   | -.151 | -.232       | -.121  |       | -.525 | .425  | -.515  | .676   | -.417   | -.260      |      |
|                | L             | -.280 | -.391 | -.883   | -.645 | -.609       | -.701  |       | -.537 | .131  | -.403  | .185   | -.589   | -.322      |      |
|                | L2            | .078  | .153  | .780    | .416  | .371        | .491   | 2.289 | .288  | .017  | .162   | .034   | .367    | .104       | .972 |
|                | % $\Sigma$ L2 | .034  | .066  | .341    | .182  | .162        | .215   |       | .296  | .017  | .167   | .035   | .378    | .107       |      |

Lamda=.784 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제1 정준함수에 대해서 정준가중치(canonical weight), 정준부하치(canonical loading), 정준적재치의 자승값( $L^2$ ),  $\% \Sigma L^2$ , 그리고 준거변인군의 군내변량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서 W는 정준가중치로서 각 변인군의 정준변량에 대한 각 변인의 기여도를, L은 각 변인과 그 변인이 속한 변인군의 정준부하치로서 각 변인과 그 변인이 속한 변인군의 정준변량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L^2$ 는 정준부하치의 자승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 \Sigma L^2$ 는 각 변인군 내의 전체  $L^2$ 값에서 각 변인의  $L^2$ 값에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7에 제시된 제1 정준변량함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창의성 변인들 중 정준부하치가 가장 높은 변인은 제목의 추상성(-.883)으로 군내변량의 34.1%를 설명하였고, 창의적 강점(-.701)이 21.5%, 정교성(-.645)이 18.2%,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609)이 16.2%를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는 청소년의 창의성 변인 중에서 추상성이 자아존중감 변인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창의적 강점, 정교성,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이며, 예측력이 가장 낮은 것은 유창성과 독창성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측변인군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유력한 준거변인은 행동 · 품행(-.589)으로 군내변량의 37.8%를 설명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학업능력(-.537)이 29.6%, 사회적 수용

표 8. 청소년의 창의성 하위변인군과 자아존중감 하위변인군 간의 교차상관

| 예측변인군       | 정준준거변인군과의<br>교차상관적재치 | 준거변인군     | 정준예측변인군과의<br>교차상관적재치 |
|-------------|----------------------|-----------|----------------------|
| 유창성         | -.098                | 학업능력      | -.188                |
| 독창성         | -.137                | 운동능력      | .046                 |
| 제목의 추상성     | -.309                | 사회적 수용    | -.141                |
| 정교성         | -.226                | 신체적 용모    | .065                 |
|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 | -.213                | 행동·품행     | -.206                |
| 창의적 강점      | -.245                | 전반적 자아가치감 | -.113                |

도(-.403)가 16.7%를 설명하였다. 즉, 창의성 요인들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요인은 행동·품행 요인이며 두 번째는 학업능력, 그 다음이 사회적 수용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에서는 청소년의 창의성 변인군과 자아존중감 각 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인군과 창의성 각 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교차상관을 통해 알아보았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교차상관에서 가장 예측력이 강한 예측변인은 제목의 추상성(-.309)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창의적 강점(-.245), 정교성(-.226),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213)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요인은 행동·품행(-.206)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업능력(-.188)과 사회적 수용(-.141)이었다. 이는 청소년의 창의성 변인중 추상성과 창의적 강점, 정교성

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잘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이 변인들은 자아존중감 중 행동·품행에 대한 자아평가와 학업능력에 대한 유능감, 사회적 수용도를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추상적인 사고능력이 높고 자신의 사고를 정교화할 수 있는 청소년들일수록 자신의 언어생활이나 일상행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학업에 대한 능력도 높게 평가하며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의 창의성 하위요인군과 자기효능감 하위요인군과의 관계 분석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즉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창의성 요인은 무엇이며 청소년의 창의성에 의해 가장

표 9. 청소년의 창의성 하위변인군과 자기효능감 하위변인군 간의 정준변량함수

| 정준변량함수  | 정준계수 | 정준근  | 비율     | 고유치  | Wilk's | Chi-SQ | df | Sig. |
|---------|------|------|--------|------|--------|--------|----|------|
| 제1 정준함수 | .291 | .085 | 70.140 | .093 | .880   | 32.640 | 18 | .018 |
| 제2 정준함수 | .176 | .031 | 24.154 | .032 | .962   | 9.961  | 10 | .444 |
| 제3 정준함수 | .086 | .007 | 5.706  | .008 | .993   | 1.922  | 4  | .750 |

잘 예측되어지는 자기효능감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의 창의성을 예측변인군으로 하고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준거변인군으로 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참조).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개의 정준함수 중 제1 정준함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유의도 검증결과를 보면 Wilk's Lambda = .880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제1 정준함수에 대해서 정준가중치(canonical weight), 정준부하치(canonical loading), 정준적재치의 자승값( $L^2$ ), 각 변인의  $L^2$ 값이 그 변인이 속한 변인군의 전체  $L^2$ 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 \sum L^2$  그리고 준거변인군의 군내변량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에 제시된 제 1정준변량함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창의성 변인들 중 정준부하치가 가장 높은 예측변인은 제목의 추상성(.892)으로 군내변량의 36.7%를 설명하였고, 정교성(.738)이 25.1%, 창의적 강점(.726)이 24.3%,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535)이 13.2%를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는 청소년의 창의성 변인 중에서는 추상성이 자기효능감 변인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정교성, 창

의적 강점,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이며, 예측력이 가장 낮은 것은 유창성과 독창성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측변인군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유력한 준거변인은 자기조절효능감(.943)으로 군내변량의 72.9%를 설명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과제난이도선호(.565)가 26.1%를 설명하였다. 즉, 창의성 요인들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 요인은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 요인으로, 이에 비해 자신감 요인은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에서는 청소년의 창의성 변인군과 자기효능감 각 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변인군과 창의성 각 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교차상관을 통해 알아보았다.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의 교차상관에서 가장 예측력이 강한 예측변인은 제목의 추상성(.260)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교성(.215), 창의적 강점(.211),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156)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요인은 자기조절효능감(.275)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제난이도선호(.164)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창의성 변인 중 제목의 추상성과 정교성, 창의

표 10. 청소년의 창의성 하위변인군과 자아존중감 하위변인군 간의 정준상관관계 분석

|                |      | 예측변인군 |      |         |      |             |        | 준거변인군 |       |           |           |       |
|----------------|------|-------|------|---------|------|-------------|--------|-------|-------|-----------|-----------|-------|
|                |      | 유창성   | 독창성  | 제목의 추상성 | 정교성  |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 | 창의적 강점 | 전체    | 자신감   | 자기 조절 효능감 | 과제 난이도 선호 | 전체    |
| 정준<br>변량<br>함수 | W    | .079  | .059 | .665    | .328 | .062        | .125   |       | -.312 | .904      | .199      |       |
|                | L    | .286  | .303 | .892    | .738 | .535        | .726   |       | -.111 | .943      | .565      |       |
|                | L2   | .008  | .009 | .796    | .544 | .286        | .527   | 2.170 | .012  | .889      | .319      | 1.220 |
|                | %ΣL2 | .003  | .004 | .367    | .251 | .132        | .243   |       | .010  | .729      | .261      |       |

표 11. 청소년의 창의성 하위변인군과 자기효능감 하위변인군 간의 교차상관

| 예측변인군       | 정준준거변인군과의<br>교차상관적재치 | 준거변인군   | 정준예측변인군과의<br>교차상관적재치 |
|-------------|----------------------|---------|----------------------|
| 유창성         | .083                 | 자신감     | -.032                |
| 독창성         | .088                 |         |                      |
| 제목의 추상성     | .260                 | 자기조절효능감 | .275                 |
| 정교성         | .215                 |         |                      |
|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 | .156                 | 과제난이도선호 | .164                 |
| 강점          | .211                 |         |                      |

적 강점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잘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보다 깊게 생각하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낼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교하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청소년 들일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나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높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쉬운 과제보다는 보다 도전적인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청소년의 창의성 하위요인군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하위요인군과의 관계 분석

앞에서는 청소년의 창의성 하위변인군과 자

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하위요인군과의 관계를 각각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청소년의 창의성 하위변인군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하위요인군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창의성을 예측변인군으로 하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준거변인군으로 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2 참조).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섯 개의 정준함수 중 제1 정준함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유의도 검증결과를 보면 Wilk's Lambda=.729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1 정준함수가 집단 간 상관관계의 55%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제1 정준함수에 대해서 정준상관 관계를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

표 12. 청소년의 창의성 하위변인군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하위변인군 간의 정준변량함수

| 정준변량함수  | 정준계수 | 정준근  | 비율     | 고유치  | Wilk's | Chi-SQ | df | Sig. |
|---------|------|------|--------|------|--------|--------|----|------|
| 제1 정준함수 | .394 | .155 | 55.041 | .184 | .729   | 79.813 | 54 | .013 |
| 제2 정준함수 | .255 | .065 | 20.870 | .070 | .864   | 37.123 | 40 | .600 |
| 제3 정준함수 | .187 | .035 | 10.827 | .036 | .924   | 20.079 | 28 | .862 |
| 제4 정준함수 | .164 | .027 | 8.302  | .028 | .957   | 11.093 | 18 | .890 |
| 제5 정준함수 | .093 | .009 | 2.640  | .009 | .984   | 4.174  | 10 | .939 |
| 제6 정준함수 | .088 | .008 | 2.320  | .008 | .992   | 1.953  | 4  | .744 |

표 13. 청소년의 창의성 하위변인군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하위변인군 간의 정준상관관계 분석

| 변인        |             | 정준변량함수 |       |       |               |
|-----------|-------------|--------|-------|-------|---------------|
|           |             | W      | L     | L2    | % $\Sigma$ L2 |
| 예측<br>변인군 | 유창성         | .079   | -.286 | .082  | .034          |
|           | 독창성         | -.208  | -.344 | .118  | .050          |
|           | 제목의 추상성     | -.638  | -.882 | .778  | .327          |
|           | 정교성         | -.229  | -.703 | .494  | .207          |
|           |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 | -.200  | -.613 | .376  | .158          |
|           | 창의적 강점      | -.145  | -.731 | .534  | .224          |
|           | 전체          |        |       | 2.382 |               |
| 평가<br>변인군 | 학업능력        | -.268  | -.459 | .211  | .155          |
|           | 운동능력        | -.404  | -.344 | .002  | .001          |
|           | 사회적 수용      | .430   | .148  | .118  | .087          |
|           | 신체적용모       | .514   | .149  | .002  | .001          |
|           | 행동·품행       | -.268  | -.546 | .298  | .219          |
|           | 전반적 자아가치감   | -.226  | -.276 | .076  | .057          |
|           | 자신감         | .203   | .066  | .004  | .003          |
|           | 자기조절효능감     | -.452  | -.697 | .485  | .357          |
|           | 과제난이도 선호    | -.150  | -.404 | .163  | .120          |
|           | 전체          |        |       | 1.359 |               |

와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에 제시된 제 1정준변량함수의 정준부하치에 대해 살펴보면 예측변인군에서 부하치가 가장 높은 변인은 제목의 추상성(-.882)이었으며, 그 다음은 창의적 강점(-.731), 정교성(-.703),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613) 순이었다. 준거변인군 중 부하치가 가장 높은 변인은 자기조절효능감(-.697)이었으며, 그 다음은 행동·품행(-.546), 학업능력(-.459), 과제난이도선호(-.404), 사회적 수용도(-.344), 전반적 자아가치감(-.276)순이었다. 예측변인군에서 제목의 추상성은 군내변량의 32.7%를 설명하였고, 창의적 강점이 22.4%, 정교성이 20.7%,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이 15.8%를 설명했으며, 준거변인군에서는 자기조절효능감이 군내변량의 35.7%를 설명하였고, 행동·품행이 21.9%, 학업능력이 15.5%를 설명하였다.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창의성 하위변인군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하위변인군 간의 교차상관에서 가장 예측력이 강한 예측변인은 제목의 추상성(-.347)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창의적 강점(-.288), 정교성(-.277)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241)순으로 나타났다, 준거변인군에서 가장 잘 설명되어지는 요인은 자기조절효능감(-.275)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행동·품행(-.215), 학업능력(-.181),

표 14. 청소년의 창의성 하위변인군과 자기효능감 및 자기효능감 하위변인군 간의 교차상관

| 예측변인군       | 정준준거변인군과의<br>교차상관적재치 | 준거변인군     | 정준예측변인군과의<br>교차상관적재치 |
|-------------|----------------------|-----------|----------------------|
| 유창성         | -.113                | 학업능력      | -.181                |
| 독창성         | -.136                | 운동능력      | .058                 |
| 제목의 추상성     | -.347                | 사회적 수용    | -.136                |
| 정교성         | -.277                | 신체적 용모    | .059                 |
|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 | -.241                | 행동·품행     | -.215                |
| 창의적 강점      | -.288                | 전반적 자아가치감 | -.109                |
|             |                      | 자신감       | .026                 |
|             |                      | 자기조절효능감   | -.275                |
|             |                      | 과제난이도선호   | -.159                |

과제난이도선호(-.159), 사회적 수용도(-.13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창의성 변인들 중 제목의 추상성과 창의적 강점, 정교성,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잘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준거변인들(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변인) 중 자기조절효능감, 행동·품행에 대한 자아평가, 학업능력, 과제난이도선호와 사회적 수용도를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자신에게 닥친 문제나 상황에 대해 보다 깊게 생각하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낼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교하게 구체화시키며 최선의 선택을 위해 자신의 판단을 보류할 수 있는 청소년들일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나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높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쉬운 과제보다는 보다 도전적인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태도나 행동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적절하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학업능력도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부모 혹은 친구나 교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창의성,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우선 창의적인 사고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유창성과 독창성 점수는 표준화된 점수의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정교성이나 제목의 추상성 점수는 표준화된 점수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청소년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해내고,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능력은 뛰어난 편이나,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자신의 판단을 보류하거나 자신이 산출한 아이디어를 정교화시키거나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은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교성은 조합적 사고능력과 추상적 사고능력을 토대로 섬세하고 조직적인 구성능력이 향상되어야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 발달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요인(Rose & Lin, 1984)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의 창의성 발달 수준은 아직 미숙한 단계에 놓여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이는 본 연구대상이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라 여겨진다. 한편 창의성 발달의 두 번째 절정기는 사춘기를 전후한 시점으로 이 시기에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자아상을 검토하며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창의성이 발현되는 시기이고 사고의 체계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시기로(권이중, 1996) 내면에 잠재된 창의성을 개발 시키기에 적절한 시기이다. 따라서 창의성 발달의 절정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풍부한 창의적 경험과 창의적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잠재되고 억눌려 있는 창의성을 일깨워주는 노력이 청년초기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보통 수준으로 하위요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운동능력, 행동·품행, 사회적 수용, 학업능력, 신체적 용모 순으로 나타나 외모에 있어서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춘기에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다가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Harter, 1989)는 결과와 연결시켜 볼 때 사춘기에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아의식이 급격히

높아지는 동시에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민감해진다. 특히, 이 시기는 이차성징이 나타남에 따라 신체적으로 여학생들은 보다 여자다워지고 남학생들은 보다 남자다워지는 시기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청소년들이 다른 영역에 비해 자신의 신체나 용모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것은 이러한 사춘기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하위요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자기조절효능감이 가장 높고,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긍정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의 발달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결과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이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의 진학이 자기효능감 저하의 요인이 된다(Bandura, 1997)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Eccles와 Midgely(1989)는 비교적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초등학교 환경에서 대학을 준비하거나 직업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수업시간마다 교사가 바뀌는 변화 속에서 자신의 효능감, 사회적 관계와 위치 등을 재형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적응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개인적 통제능력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고 자신에 대해 덜 확신하게 되며 사회적 평가에 더 민감해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창의성,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있어서의 성차를 살펴본 결과, 우선 창의성에 있어서의 성차를 보면 창의성의 하위요인 중 유창성에 있어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남자 청소년들이 유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능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유창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김미숙, 1985)는 것과 상반되는 결과이지만 창의성에 있어서의 성차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많은 논의거리를 갖고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창의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창의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창의성의 성차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창의적인 여아는 평범한 여아에 비해 지배적이고 거친 행동을 보이고 창의적인 남아는 평범한 남아에 비해 좀 더 섬세하며 덜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Csikszentmihalyi(1988)의 연구결과는 사회문화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강한 압박을 받지 않는 유아들이 창의성 발달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남자 청소년이나 여자 청소년 중 어느 성이 더 창의적인가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여성의 어떠한 측면이 혹은 남성의 어떠한 측면이, 또는 여성이나 남성에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이 창의성 발달이나 창의성 발현에 도움을 주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자아존중감에서의 성차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학업능력, 운동능력, 행동·품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능력과 운동능력에서의 유능성은 높게 인식하는 데 비해 자신들의 말이나 행동, 품행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이 이후의 긍정적인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Coopersmith, 1981; Harter, 1989; Rosenberg, 1985) 특히 중학교 이후에는 학업적인 부분이 청소년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고려해볼 때 여자 청소년들의 학업능력이나 운동능력과 관련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윤운성, 1999; Prinrich & De Groot, 1990)와는 다소 다른 결과로서,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남아선호사상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의 능력이나 개성에 맞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있고, 사회에서도 고정화된 남녀역할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함에 따라 여성들이 과거에 비해 자기 발전의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의 모습은 여자 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자극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셋째, 청소년의 창의성,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특히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창의성 또한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창의성

충점은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학업능력과 그리고 창의성의 하위요인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창의적 사고능력이 학업능력에 대한 유능성을 인식하는 것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는 여전히 입시위주의 주입식·암기식 교육이 주를 이루는 학교교육에 창의성이 변화의 촉매제로 작용하리라 사료된다.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두 변인의 하위요인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창의적인 청소년들은 문제나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나 분석력, 정보활용도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추상적인 사고를 잘 하는 청소년일수록 문제에 대한 판단력이 좋고 끈기가 있을 뿐 아니라 쉬운 과제보다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자 하며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창의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배진수와 이영만(2000), 성은현(2005), Cropley(2001), Piirto(199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자아존중감 총점과 자기효능감 총점 간에는 매우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각 하위요인 간에도 매우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Judge와 Bono(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아존중감과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자기조절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자기효능감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청소년의 창의성 하위변인군과 자아존중감 하위변인군 간의 정준상관 분석결과,

제1 정준함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즉, 청소년의 창의적 사고능력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창의성 변인은 제목의 추상성이고, 창의적 강점과 정교성,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도 자아존중감을 잘 예측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창의성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는 자아존중감 변인은 행동·품행에 대한 자아평가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업능력과 사회적 수용도였다. 다시 말해서, 문제나 상황에 대해 보다 깊게 생각하고,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보다 정교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느끼고, 학업능력에 있어서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친구들이나 교사 혹은 자신에게 주요한 인물들로부터 인정받고 수용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성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상관이 거의 없다는 결과(조성연, 1997)와는 상반되지만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이 창의적 특성을 측정하는 창의성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고 창의성의 발현을 위해 높은 자아존중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Cropley(2001)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인 사고능력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보다 심도있게 살펴보기 위해 창의적인 사고능력의 어떤 영역이 자아존중감의 어떤 영역과 관련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일상적이고 고정화된 사고를 하는 것보다 보다 깊게 생각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키우는 것이 청소년의 행동이나 품행과 관련

된 자아존중감과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청소년의 창의성 하위변인군과 자기효능감 하위변인군 간의 정준상관 분석결과, 제1 정준함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즉, 청소년의 창의적 사고능력은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창의성 변인은 제목의 추상성이고 정교성과 창의적 강점,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도 자기효능감을 잘 예측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창의성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는 자기효능감 변인은 자기조절효능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제난이도선호였다. 다시 말해서, 추상적인 사고능력이 높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교하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청소년 들일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나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높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쉬운 과제보다는 보다 도전적인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의성과 자기효능감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들(배진수와 이영만, 2000; 성은현, 2005; Cropley, 2001; Piirto, 1998)과 일치하는 것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각 개인의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특히, 창의성을 인지적이며 개인의 내재된 성향의 차원에서 거론하던 것에서 벗어나 평생에 걸친 발달적 적응(life-span developmental adjustment)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창의성 연구가 필요하다(Csikszentmihalyi, 1997)는 의견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이 변인들의 연령에 따른 발달적 경향성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도 필요

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청소년의 창의성을 예측변인군으로 하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함께 준거변인군으로 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1 정준함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즉, 청소년의 창의성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창의성 변인 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인은 제목의 추상성이었고, 그 다음이 창의적 강점, 정교성,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이었다. 또한, 청소년의 창의성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변인은 자기조절효능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행동·품행, 학업능력, 과제난이도선호, 사회적 수용도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나 상황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자신의 생각을 정교하게 구체화시키며 최선의 선택을 위해 자신의 판단을 보류할 수 있는 청소년들일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나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높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과제보다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품행이 올바르게 인지하며, 학업능력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부모 혹은 친구나 교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 신장에 있어 추상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과정의 중요성을 강하게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창의적 사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창성보다 추상적인 사고능력과 정교성 등이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

이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형식적 조작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재와 과거의 경험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는 물론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이상적이었던 하고 바라는 특성들에 대한 사고(이상주의적 사고) 또한 하게 된다(정옥분, 2002). 이는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인지적 발달특성들이 청소년들의 창의적 사고나 심리적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독특한 사고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상황적 특성이나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고려하여 서로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사고능력을 가지는 것이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들은 어떠한 문제나 상황에 대해 아무 생각없이 수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받아들이기보다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비판적·통합적으로 접근해보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문제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한국의 학교교육에서 주를 이루는 교육이 입시위주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독립적인 사고를 북돋우고, 개개인의 개성신장과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폭넓은 고차원적 사고 경험을 통해 학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창의적인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

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새롭고 난이도 있는 일에 도전하며 늘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Barron, 1988; Cropley, 2001; Davis, 2001; Starko, 1995)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창성, 정교성, 추상성과 같은 사고능력을 가진 청소년들은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한다. 요컨대,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은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것들이 이후의 건강한 발달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교나 가정에서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을 키워줄 수 있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청소년들의 창의성,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연령별 차이나 변화를 보고자 한다면 보다 다양한 시기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는 성차를 보는 데 있어 표집크기가 고르지 못한 한계를 지니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고른 표집크기를 기준으로 한 성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대상을 서울과 수도권 소재의 중산층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제한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일반화를 위해 보다 많은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나타난 만큼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인이 매개가 되어 이 변인들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본용 · 김용태 · 이재규 · 박한샘 · 공운정 (1995). 청소년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 II.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권이중 (1996). 청소년학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미숙 (1985). 5세 유아의 사려성-충동성 인지 양식과 창의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아영 (1997).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통계학술대회 논문집, 51-64.
- 김영채 (2002). 검사요강: 토란스 TTCT. 토란스 한국 FPSP/현곡R&D.
- 김의철 ·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 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박영신 · 김의철 · 정갑순 · 이상미 · 권혁호 ·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진수 · 이영만 (2000).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창의적 성격과 창의성과의 관계. 초등교육연구, 13(2), 43-61.
- 성은현 (2005). 자아존중감, 일반적자기효능감과 창의적인성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6(1), 1-12.
- 윤운성 (1998). 자기효능감 관련 변인 탐색.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 14(2), 213-238.
- 윤운성 (1999).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3(4), 213-218.
- 이현림 (2002). 생활지도.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 정옥분 (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성연 (1997). 도시와 농촌아동의 창의성과 자아 존중감 및 어머니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2(2), 17-32.
- 한국교육개발원 (1994). 국민학생의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수업 방법 연구.
- Bandura, A. (1986).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_\_\_\_\_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 117-148.
- \_\_\_\_\_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601-607.
- Bandura, A., Gioffi, D., Taylor, C. B., & Brouillard, M. E. (1988). Perceived self-efficacy in coping with cognitive stressors and opioid ac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179-188.
- Barron, F. (1988). Putting creativity to work. In R. J. Sternberg(Ed.), *The nature of creativity: Contemporary psychological perspectives*. Cambridge

- University Press.
- Branden, N. (1969). *The psychology of self-esteem*. Los Angeles, California: Nash Publishing Corporation.
- Button, E. (1990). Self-esteem in girls aged 11-12: Baseline findings from a planned prospective study of vulnerability to eating disorders. *Journal of Adolescence*, 13, 407-413.
- Collins, J. L. (1982). Self-efficacy and ability in achievement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York.
- Coopersmith, S. (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2nd E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 Cropley, A. J. (2001). *Creativity in education & learning*, UK: Kogan page.
- Csikszentmihalyi, M. (1988). *Society, culture and person: A system view of cre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Csikszentmihalyi, M. (1997).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New York: Harper and Collins.
- Daugherty, M., & Logan, J. (1995). Private speech assesment: a medium for studying the cognitive process of young creative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15, 5-17.
- Davis, G. A. (2001). *Creativity is forever*. Iowa: Kendall/Hunt Publishing Company.
- Dowd, E. T. (1989). The self and creativity. In J. A. Glover, R. R. Ronning, & C. R. Reynold(Eds.), *Handbook of Creativity*. New York: Plenum Press.
- Eccles, J. S., & Midgely, C. (1989). State-environment fit: Developmentally appropriate classrooms for young adolescents. In R. Ames & C. Ames(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Vol.3. Goals and cognitions, 139-186, New York: Academic.
- Eden, D. & Aviram, A. (1993). Self-efficacy training to speed reemployment: helping people to help themselv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3), 352-360.
- Fenzel, L. M. (1994, February). *A prospective study of the effects of chronic strains on early adolescent self-worth and school adjustment*.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San Diego.
- Guilford, J. P. (1967). *The nature of human intelligence*. New York: McGraw-Hill.
- Harter, S. (1989).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Kolligan & R. Sternberg(Eds.). *Perceptions of competence and incompetence across life-spa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arter, S., & Marold, D. B. (1992). Psychosocial risk factors contributing to adolescent suicide ideation. In G. Noam & S. Borst (Eds.), *Child and adolescent suicide*. San Francisco: Jossey-Bass.
- Holahan, G. K. (1996). Self-efficacy: physical decline, and change in functioning in community living elders: A prospective study. *The Gerontologist*, 31(5), 183-190.
- Judge, T. A., & Bono, J. E. (2001). Relationship of core self-evaluations trait-self-esteem, generalized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emotional stability with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 meta-analysis, *Journal of*

- Applied Psychology*, 86, 80-92.
- Maslow, A. H. (1965).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In D. E. Hamachek (Ed.), *The self in growth, teaching and learning*. New Jersey: Prentice-Hall.
- Piirto, J. (1998). *Understanding those who create*. Gifted Psychology Press, Inc.
- Printrich, P. R., & De root, E. V.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33-40.
- Reardon, B., & Griffing, P. (1983, Spring). Factors related to the self-concept of institutionalized, white, male, adolescent drug abusers. *Adolescence*, 18, 29-41.
- Robertson, J. F., & Simons, R. L. (1989). Family factors,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25-138.
- Rose, L. H. & Lin, H. (1984). A Meta-analysis of long term creativity training program.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8(1), 11-22.
- Rosenberg, M.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A. Leaky(Ed.). *The development of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201-228.
- Simmons, R. G., & Blyth, D. A. (1987). *Moving into adolescence: The impact of pubertal change and school context*. Hawthorne, New York: Aldine & de Gruyter.
- Starko, A. J. (1995). *Creativity in the classroom: schools of curious delight*. New York: Longman.
- Torrance, E. P. (1959). Current research on the nature of creative tal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I(4), 6-11.
- 1차원고접수 : 2006. 01. 22.  
수정원고접수 : 2006. 02. 27.  
최종게재결정 : 2006. 03. 06.

##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Creativity,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ck-Boon Chung      Kyoung-Eun Kim      Youn-Jung Park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adolescent's creativity related to his or he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The 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Torrance, 1990), the Self-perception profile(Park, 1995), and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Kim, 1997) were administered to 262 middle school students around the capital city. The Data were analyzed by Cronbach  $\alpha$  tests, means, standard deviations,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an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1. The creativity,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f adolescents have achieved above the normal level of expectance. 2.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exes were identified by their academic and physical abilities, behavior and characteristics. 3. The adolescent's creativity was presumably associated with self esteem and self efficacy.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creativity, self esteem and self-efficacy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ubscales of the three variables were also significant. 4. After further examination,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Abstractness of Titles wa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an adolescent'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ther influential factors were Creative Strength, Elaboration, and Resistance to Premature Closure. Among self-esteem and self-efficacy factors the best predicted one by creativity was Self-control Efficacy, the next ones were Behavioral Conduct, Scholastic Competence, Task Preference and Social Acceptance.

*Key words : adolescent, creativity, self-esteem, self-efficacy*

표 5. 청소년의 창의성,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             | 창의성    |        |         |        |            |        |        | 자아존중감  |        |        |        |        |            |           | 자기효능감  |           |           |
|-------------|--------|--------|---------|--------|------------|--------|--------|--------|--------|--------|--------|--------|------------|-----------|--------|-----------|-----------|
|             | 유창성    | 독창성    | 제목의 추상성 | 정교성    | 성급한 종결에 저항 | 창의적 강점 | 창의성 총점 | 학업 능력  | 운동 능력  | 사회적 수용 | 신체적 수용 | 행동·품행  | 전반적 자아 존중감 | 자아 존중감 총점 | 자신감    | 과제 난이도 조절 | 자기 효능감 총점 |
| 유창성         |        |        |         |        |            |        |        |        |        |        |        |        |            |           |        |           |           |
| 독창성         | .84*** |        |         |        |            |        |        |        |        |        |        |        |            |           |        |           |           |
| 제목의 추상성     | .73    | .09    |         |        |            |        |        |        |        |        |        |        |            |           |        |           |           |
| 정교성         | .22**  | .23**  | .40**   |        |            |        |        |        |        |        |        |        |            |           |        |           |           |
| 성급한 종결에의 저항 | .40*** | .34*** | .33***  | .46*** |            |        |        |        |        |        |        |        |            |           |        |           |           |
| 창의적 강점      | .14    | .17**  | .51***  | .67*** | .40***     |        |        |        |        |        |        |        |            |           |        |           |           |
| 창의성 총점      | .58*** | .55*** | .55***  | .64*** | .62***     | .59*** |        |        |        |        |        |        |            |           |        |           |           |
| 학업 능력       | .07    | .13    | .17**   | .11    | .04        | .13*   | .15*   |        |        |        |        |        |            |           |        |           |           |
| 운동 능력       | .00    | .02    | -.02    | -.12   | -.07       | -.08   | -.01   | .33*** |        |        |        |        |            |           |        |           |           |
| 사회적 수용      | .09    | .10    | .13*    | .06    | .09        | .05    | .12    | .22*** | .38*** |        |        |        |            |           |        |           |           |
| 신체적 용모      | -.07   | -.08   | -.04    | .01    | -.09       | -.07   | -.06   | .31*** | .14*   | .23*** |        |        |            |           |        |           |           |
| 행동·품행       | -.05   | -.05   | .22***  | .19**  | .11        | .13*   | .10    | .37*** | -.02   | .08    | .29*** |        |            |           |        |           |           |
| 전반적 자아가치감   | -.04   | -.02   | .13*    | .05    | .04        | .06    | .04    | .35*** | .12*   | .22*** | .57*** | .48*** |            |           |        |           |           |
| 자아존중감 총점    | -.01   | .02    | .14*    | .07    | .02        | .05    | .08    | .68*** | .49*** | .51*** | .73*** | .58*** | .76***     |           |        |           |           |
| 자신감         | -.10   | -.04   | .01     | -.05   | -.05       | -.07   | -.07   | .25*** | .29*** | .24*** | .34*** | .25*** | .43***     | .48***    |        |           |           |
| 자기조절 효능감    | .06    | .08    | .25***  | .20**  | .16*       | .19**  | .20**  | .51*** | .29*** | .27*** | .19**  | .44*** | .31***     | .52***    | .18**  |           |           |
| 과제난이도 선호    | -.02   | .02    | .18**   | .10    | .01        | .10    | .11    | .30*** | .16*   | .12*   | .17**  | .21**  | .20**      | .31***    | .20**  | .47***    |           |
| 자기효능감 총점    | -.02   | .03    | .21**   | .12    | .07        | .11    | .12    | .51*** | .35*** | .31*** | .33*** | .43*** | .44***     | .62***    | .64*** | .80***    | .72***    |